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Infants' and Toddl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김미정(Kim, Mi Jeong)** · 이경님(Lee, Kyung Nim)***

본 연구는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직·간접적 영향을 경로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의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의 어머니 232명이며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양육효능감 척도, 유아의 기질 척도가 사용되었다.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척도의 신뢰도를 산출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후 연구문제에 따라 적률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애정 및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애정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유아의 기질이,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가장 큰 인과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써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애정 및 권위주의적 통제 및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에 매개역할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애정 및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 및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유아의 기질이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더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기질, 영아기와 걸음마기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동아대학교 강사

*** 교신저자: 동아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knlee@dau.ac.kr

I. 서론

어머니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어떠한 태도와 행동으로 아동을 양육하는가에 따라 아동의 발달과 행동 특징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오랫동안의 연구들에 의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밝혀지고 있어(Baumrind, 1993; Belsky, 1984) 최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어떠한 요인들이 관련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박성연, Rubin, 2008; 최형성, 2006).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유아기나 학령기 아동을 자녀를 둔 어머니에 초점에 맞추어 어머니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며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였다(김은진, 박성연, 임희수, 2009). 영아기와 걸음마기는 급성장을 보이며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생애의 어느 시기보다 양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Bornstein, 2002) 영아기와 걸음마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밝히는 연구는 의의 있다고 본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은 아동 변인과 어머니 변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아동의 개인적 특성은 어머니가 아동에게 어떠한 태도와 행동으로 양육할 것인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 아동의 기질적 특성은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Putnam, Sanson, & Rothbart, 2002). 기질은 생애 초기에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성과 자기조절에서의 안정적인 개인차를 의미한다(Kail, 2007). 기질을 형성하는 심리적 특성은 성격의 기초부분으로 유아가 보이는 기질적 특성의 차이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Shiner & Caspi, 2003, 광금주의 역, 2009, 재인용). 따라서 유아의 기질의 개인차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원에 다르게 영향을 미침을 유추 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의 낮은 사회성과 높은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통제성 양육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로가 발견되었으며(박영태, 이경님, 2011)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의 부모는 더 과잉 반응성이 높고 언어적 표현이 장황한 훈육태도를 보이며(문혁준, 2000) 유아의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양미, 1994; Crokenberg & Acredolo, 1983). 또한 아동의 정서성 기질은 어머니의 반응적, 통제적, 거부적 양육태도에 직접적인 경로가 나타났으며(김은진, 박성연, 임희수, 2009),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이지희, 문혁준, 2010). 이와 같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유아의 기질적 특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원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 변인 중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의 가장 직접적인 선행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문혁준, 2005; 이주연, 2009; 최형성, 2006; Coleman & Karraker, 1997).

양육효능감은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론에 배경을 두고 있으며, 양육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Teti & Gelfand, 1991) 또는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과 관련된 양육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모 스스로의 판단(Dorsey et al., 1999)으로 정의 된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양육행동의 개인 차이를 야기한다(Coleman & Karraker, 2003, 최형성, 2005a, 재인용).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로가 나타났으며(이주연, 200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남아와 여아의 온정·수용 및 거부·제재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아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형성, 2005b). 또한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으며(Sanders & Wooley, 2005) 수용적 양육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 1996)이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중요한 직접적인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에 대한 선행변인들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매개효과의 역할도 한다(이주연, 2009; 최형성, 2005a; Leerkes & Crockenberg, 2002). 이와 관련된 연구들 중 학령기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온정·수용과 거부·제재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발견되었다(최형성, 2005a). 또한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온정수용,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히고 있다(최형성, 2006). 그리고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양육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이주연, 2009).

이와 더불어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많았다. 즉 취학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아동의 정서성 기질이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으며(문혁준, 2005), 영아의 생리적 규칙성, 적응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으며(이윤진, 2007; 정점옥, 2009), 학령기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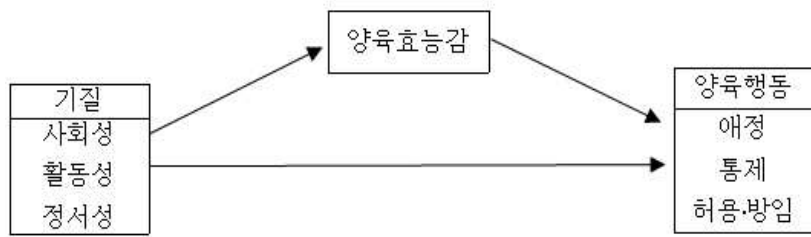
의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정적인 관계가 보고되었다(최형성, 2005a). 이로써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에 매개적인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고려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이 가정 할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기질과 양육행동 간에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하여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통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미흡하였으며 특히 영아기와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를 검토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기와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경로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기와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양육효능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바람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된 가설적 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고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1] 가설적 경로모형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행동(애정, 통제, 허용·방임)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와 대구시 및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내 문화센터의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영아기와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 232명이다. 이들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 중 남아는 115명(49.6%), 여아는 117명(50.4%)이고, 12개월에서 2세 미만 146명(62.9%), 2세~3세 미만 86명(37.1%)이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은 26~30세가 108명(4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1~35세가 66명(41.4%)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가 192명(83.6%)으로 나타났고, 직업이 있는 어머니가 38명(16.4%)이었다. 어머니 학력은 전문대졸 이하가 119명(51.3%), 대졸 이상이 113명(48.7%)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가정소득을 살펴보면 201~300만원이 98명(42.2%)으로 가장 많았고, 301~400만원이 69명(29.7%)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와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의 일반적 특성

(N=232)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아	115(49.6%)
	여아	117(50.4%)
연령	2세미만	145(62.5%)
	2세~3세	87(37.5%)
	25세미만	19(8.2%)
	26~30세	108(46.6%)
어머니의 연령	31~35세	66(41.4%)
	36세	9(3.9%)
	전문대졸이하	119(51.3%)
어머니 학력	대졸이상	113(48.7%)
	200만원이하	19(8.3%)
가정소득	201~300만 원	98(42.2%)
	301~400만 원	69(29.7%)
	401만원이상	46(19.8%)
	있음	38(16.4%)
어머니의 직업	없음	192(83.6%)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와 일반적 배경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연과 이숙(1990)의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 중 애정요인과 권위주의적 통제요인, 그리고 박영애(1995)의 양육행동 척도 중 허용·방임에 관련된 문항을 사용하여 척도를 구성 하였다. 먼저 박성연과 이숙(1990)의 애정요인 9문항과 권위주의적 통제요인 9문항 중 걸음마기 유아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2문항을 제외한 7문항 및 박영애(1995)의 허용·방임요인 12문항을 선정하여 모두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의 요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이들 28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Scree test와 누적분산비율을 고려하여 3개 요인으로 지정한 후 주성분 분석 및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요인부하량이 .40이 안 되는 2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26문항에 대하여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세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모두 9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27.07%를 설명하였으며 애정적 양육행동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모두 7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12.08%를 설명하였으며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모두 10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8.8%를 설명하였으며 허용·방임 양육행동으로 명명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세 요인의 설명 변량은 총 47.93%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를 들면 애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아이를 껴안아 주고 다독거리 준다.'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의 경우 '부모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르도록 한다.'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버릴 때가 많다.' 등이다. 본 척도는 '아주 비슷하다' 1점에서 '아주 다르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제적이며 허용·방임의 양육행동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애정적 양육행동 .90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 .82 허용·방임 양육행동 .84로 나타났다.

2)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Buss와 Plomin(1975)의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를 전수연(2002)이 변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사회성 4문항, 정서성 4문항, 활동성 5문항이며 이 중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활동성

1문항을 제외하고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면 사회성의 경우 ‘혼자 놀기 보다는 다른 사람과 같이 노는 걸 좋아한다.’ 정서성의 경우 ‘자주 칭얼대거나 운다.’ 활동성의 경우 ‘아주 에너지가 넘친다.’ 등이다. 본 척도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그런 편이다’ 5점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으며 활동성이 높고, 긍정적 정서성이 높아, 전체적으로 순한 기질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사회성 .71, 정서성 .76, 활동성 .66으로 나타났다.

3)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Floyd, Gilliom과 Costigan(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안지영(2001)이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학령기 자녀용으로 개발되었는데 안지영(2001)이 유아용으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7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면 ‘나는 부모 노릇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이다. 본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2010년 2월 1일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연구절차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지역 대형 할인마트 내 문화센터 1개를 선정하여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 각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절차상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2010년 3월 2일에서 23일까지 부산시와 대구시 및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내 문화센터의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부산의 경우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어머니들에게 직접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대구시와 대전시는 각 문화센터 강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이들의 협조를 받아 어머니들에게 배부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도록 하여 우편으로 전달 되도록 하였다. 회수된 자료 320부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부실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232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과 Amos 19.0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 자녀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기질의 직·간접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통하여 관련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모형 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절대적합지수로 표준 카이자승치, GFI, AGFI, RMSEA를 증분적합지수로 TLI, NFI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보하기 위한 수정은 이론적 정당성과 수정지수에 근거 하였다(김계수, 2007).

III.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먼저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1	2	3	4	5	6	7
<u>유아의 기질</u>							
1.사회성	1						
2.활동성	.479***	1					
3.정서성	.317***	.383***	1				
4.양육효능감	.213**	.129	.261***	1			
<u>양육행동</u>							
5.애정	.361***	.363***	.378***	.516***	1		
6.권위주의적 통제	-.091	-.049	-.302***	-.360***	-.419***	1	
7.허용·방임	-.311***	-.255***	-.236***	-.262***	-.337***	-.195**	1
평균	3.90	3.88	3.20	2.90	3.16	2.30	2.10
(표준편차)	.81	.78	.83	.46	.51	.59	.48

** p<.01 *** p<.001

<표 2>에 의하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성 기질($r=.361$, $p<.001$), 활동성 기질($r=.363$, $p<.001$), 정서성 기질($r=.378$, $p<.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r=.516$,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는 유아의 사회성과 활동성 및 긍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표 2>에 의하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은 유아의 정서성 기질($r=-.302$, $p<.001$)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r=-.360$, $p<.0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는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과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권위주의적 통제의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표 2>에 의하면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성 기질($r=-.311$, $p<.001$), 활동성 기질($r=-.255$, $p<.001$), 정서성 기질($r=-.236$, $p<.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r=-.262$, $p<.0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는 유아의 사회성, 활동성 및 긍정적 정서성과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허용·방임의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직·간접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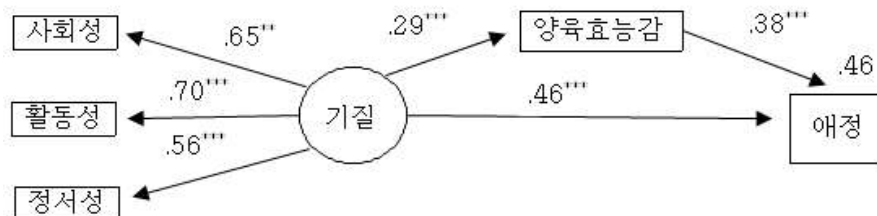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연구모형이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최적의 연구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애정과 허용·방임의 양육행동의 경우 초기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는 비교적 잘 부합하였다. 그런데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의 경우 $\chi^2/df=171.063(df=10, p<.001)$ GFI=.965 AGFI=.868 NFI=.874 TLI=.727 RMSE=.138로 대부분의 적합도가 수용기준 이하로 나타나 측정오차간의 상관을 허용하여 오차항간의 공변량을 자유화 시켜 최초의 연구모형에서 더 적절한 연구모형으로 수정하였다(김계수, 2007). 애정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초기모델과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의 경우 수정모델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적합도 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경로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양육 행동	적합 지수	절대적합지수		조정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χ^2/df	p(유의확률)	GFI	AGFI	RMSEA	TLI	NFI
애정		9.26/4=2.26	.060	.985	.944	.074	.945	.962
권위주의적 통제		3.18/2=1.59	.204	.995	.959	.051	.963	.981
허용·방임		2.26	.060	.985	.945	.074	.918	.945

<표 3>에 의하면 애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chi^2/df=2.26$ ($df=4$, $p>.05$) $GFI=.985$ $AGFI=.944$ $NFI=.962$ $TLI=.945$ $RMSEA=.074$, 권위주의적 통제양육행동의 경우 $\chi^2/df=1.59$ ($df=2$, $p>.05$) $GFI=.995$ $AGFI=.959$ $NFI=.981$ $TLI=.963$ $RMSEA=.051$,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chi^2/df=.226$ ($df=4$, $p>.05$) $GFI=.985$ $AGFI=.945$ $NFI=.945$ $TLI=.918$ $RMSEA=.074$ 로 모든 값이 적합기준에 부합되므로 경로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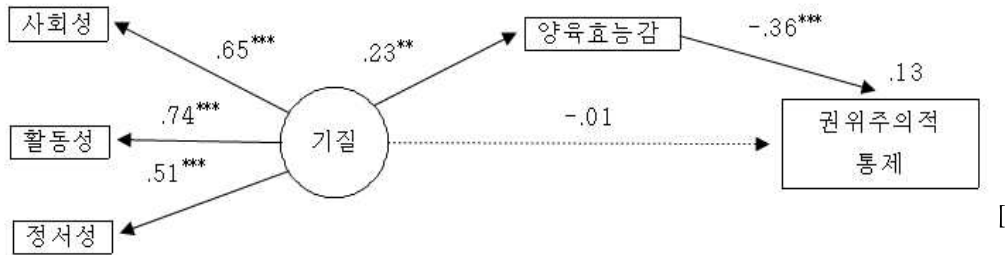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축된 경로모형의 경로계수 중 검정 통계량(C.R)이 $\alpha=.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경로계수만 선정하여 애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그림 2],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의 경우 [그림 3],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그림 4]에 제시 하였다.



[그림2]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경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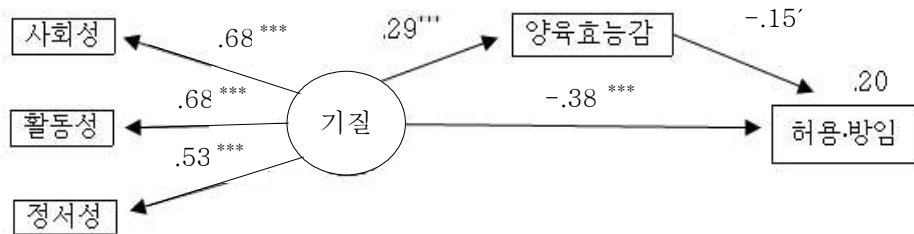
[그림 2]에 의하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유아의 기질은 직접적인 영향($\beta=.46$, $p<.001$)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beta=.29$, $p<.001$)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양육효능감은 직접적인 영향($\beta=.3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높은 사회성과 활동성 및 긍정적 정서성의 순한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애정적인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보이는 한편 유아의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하여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간접적인 정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3]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경로모형

[그림 3]에 의하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양육효능감은 직접적인 영향($\beta=-.36, p<.001$)을 미치며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beta=.23, p<.01$)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양육효능감은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하여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을 적게 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4]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경로모형

[그림 4]에 의하면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유아의 기질은 직접적인 영향($\beta=-.38, p<.001$)을 미치며 양육효능감($\beta=.29, p<.001$)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양육효능감은 직접적인 영향($\beta=-.3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유아의 순한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하여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적게 하는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로써 어머니의 애정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유아의 기질과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의 경우 양육효능감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기질과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및 허용·방임의 모든 차원의 양육행동 간에 매개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 경로모형의 다중상관자승치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설명력은 애정의 경우 45.5%, 권위주의적 통제의 경우 13.0% 허용·방임의 경우 19.8%로 나타났다.

이들을 종합하여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직·간접적인 효과와 총 효과를 살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의 인과효과

변인	양육행동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허용·방임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기질 양육 효능감	.46	.11	.57	.01	.08	.01	-.38	-.05	-.43
	.29	-	.29	-.36	-	-.36	.30	-	.30

<표 4>에 의하면 어머니의 애정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유아의 기질이 가장 큰 인과효과를 보였으며 그 다음 양육효능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의 경우 양육효능감이 가장 큰 인과효과를 보였으며 그 다음 유아의 기질의 순으로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행동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경로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애정 및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유아의 기질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성과 활동성 및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허용·방임 양육행동에는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유아

의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하여 애정적 양육행동을 이끌어 내며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적게 하는 간접 효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이끌어 낸다는 연구(임양미, 1994; Crockenberg & Acredolo, 1983)와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태도에 아동의 기질의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난 연구(김은진외, 2009) 및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아동의 기질의 직접적인 경로가 나타난 연구(최형성, 2005a)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또한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애정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많은 연구들(이주연, 2009; 최형성, 2005a, 2006)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으로써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애정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높은 사회성과 활동성 및 긍정적인 정서성을 가진 순한 기질의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이끌어 내는 한편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직접적으로 감소하게 하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도 높게 하여 애정적 양육행동을 촉진하게 함과 동시에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적게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아의 높은 사회성과 활동성 및 긍정적 정서성의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야기하는 선행요인이며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예방 할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와 여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거부·제재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난 연구(최형성, 2005b)와 일치하였다. 즉 사회성, 활동성,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하여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을 적게 하는 간접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의 기질이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성과 정서성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영태, 이경남, 2011),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의 부모가 더 언어적 표현이 장황한 훈육 방법을 사용한다는 연구(문혁준, 2000)와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유아의 기질이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우기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이 애정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학령기 아동의 기질이 거부·제재나 허용·방임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온정·수용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발견되지 않은 연구(최형성, 2005a)와도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원과 아동의 기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일관되지 않는 이유로는 연구대상 아동의 성 등 다른 변인이 혼재 될 가능성 일 수도 있다(박성연, Rubin, 2008). 이를 고려하면 유아나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관계가 있으나(Coplan et al, 2003) 유아나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양육행동의 차원별로, 또한 연령별, 성별로 다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유추된다. 그런데 영아와 걸음마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인과관계를 양육행동의 차원별로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본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영아기와 걸음마기의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및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직접적인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로가 나타난 연구(최형성, 2005a),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직접적인 선행요인으로 나타난 연구(이주연, 2009)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훈육행동과 스타일을 결정하게 한다는 연구(Leekers & Crockenberg, 2002)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로써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의 중요한 예측변인이며 양육스타일을 결정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있어 자신감과 자신의 양육 능력에 대한 믿음이 높은 경우 애정적 양육행동을 촉진하고 권위주의적 통제 및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적게 하는 직접적인 선행요인임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위한 교육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에는 효율적인 양육효능감을 증진하기위한 내용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및 허용·방임 양육행동 간에 매개적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수용과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대한 기질의 인과관계의 모형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최형성, 2005a)와 일치하였고 양육행동과 선행변인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힌 많은 연구들(이주연, 2009; Teti & Gelfand, 1991)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기질의 효과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유아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양육효능감의 역할에 따라 중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유아의 기질이 어떠한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촉진하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이는 어

어머니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양육효능감을 증진을 위한 내용이나 방안이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낮은 양육효능감이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Coleman & Karracker, 1997)와 일치하였다. 이들 연구들을 감안 하면 어머니가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대한 신념이나 자신감을 가지지 못할 경우 자녀에 행동에 대하여 권위적이며 부모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통제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에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바람직한 아동발달에 관련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한 내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애정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유아의 기질은 직접적인 영향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양육행동에 양육효능감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기질은 양육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만 나타났다. 이로써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애정과 권위주의적 통제 및 허용·방임의 모든 차원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에 매개 역할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애정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 및 허용·방임 양육행동의 경우 유아의 기질이 권위주적 통제 양육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가장 큰 인과효과를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영아기와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변인으로 양육효능감과 유아 변인으로 기질을 선정하여 이들의 경로모형을 살펴보는데 국한되었다. 그 외 인지적 요인으로 양육지식, 정의적 요인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 취업 여부 및 가족 환경 변인 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들을 포함한 다양한 변인들이 선정되어 더욱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영아기와 걸음마기의 양육행동과 관련 변인 간의 경로가 분석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원별로 성에 따른 차이가 보고되고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의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 변인 간의 경로에 대한 성별 분석이 이루어져 이를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자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은진, 박성연, 임희수. (2009). 아동의 성,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심리적복지가 걷음마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9), 71-82.
- 문혁준. (2000).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 훈육방법. **대한가정학회지**, 38(6), 29-41.
- 문혁준. (2005). 취학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6(6), 139-149.
- 박성연, 이숙. (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6-156.
- 박성연, Rubin, K. (2008). 걸음마기 아동의 성, 기질 및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109-124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태, 이경님. (201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교사-유아 관계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6(1), 235-256.
- 이윤진. (2007).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 (2001). 2-3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희, 문혁준. (2010).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 분석. **아동학회지**, 31(3), 17-32.
- 이주연. (2009).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간의 관계연구 :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7(5), 35-48.
- 임양미. (1994). 어머니 양육방식의 관련 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수연. (2002). 아동 기질과 부모 양육형태에 따른 행동발달의 차이: 발달적 맥락에 따른 ‘조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점옥. (2009).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성. (2005a). 양육효능감의 매개역할 : 양육행동의 인과관계 모형. **아동학회지**, 26(6), 351-365.
- 최형성. (2005b). 남녀아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양육행동의 인과관계 모

- 형. *인간발달연구*, **12(4)**, 121-137.
- 최형성. (2006).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의 제 변인들에 대한 모형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4(11)**, 79-89.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el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Inc.
- Baumrind, D. (1993). The average expectable environment is not good enough. A response to scarr. *Child Development* ,**64**, 1299-1317.
- Belsky, J. (1984). The determination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ornstein, M. C. & Lamb, M. E. (2009) Developmental science, **발달과학**(곽금주, 김민화, 신혜은, 김연수, 이새별, 이승진 옮김). 서울: 학지사 (원판 2005).
- Bornstein, H. M.(2002). *Handbook of parenting*. In M. N. Bornstein(2nd Ed.). *Parenting infants(Vol.1.PP.3-43)*.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 Erlbaum.
- Ce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2)**, 126-148.
- Coplan, R. J., Bowker, A.,& Cooper, S. M. (2003). Parenting daily hassles, child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Early Childhood Quarterly*, **18**, 376-395.
- Crokenberg, S., & Acredolo, C. (1983). Infant temperament, ratings a function of infants, or mothers, or both?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61-72.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Dumka, I.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 (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Floyd, F., Gilliom, L. A., & Costigan, C. L. (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 alliance; Longitudinal model of matern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difficult temperament during toddlerhood.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7, 207-215.
- Kail, R. V. (2007). *Children and their development(5th)*. Pearson Prentice Hall.
- Leekes, E. M., & Crokenberg, S. C. (2002). The development of maternal self-efficacy and its impact on maternal behavior *Infancy*, 3(2), 227-247.
- Putman, S. P., Sanson, A., & Rothbart, M. K. (2002).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In M. N.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2nd ed, Vol, 1)* Mashwah NJ: Erlbanm
- Shiner, R., & Capsi, A. (2003). Personality differences in childhood and adolescent: Measurement, development, and consequenc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1), 2-32.
- Sanders, M. R. & Wooley , M. C.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implications for parent training.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 31(1), 65-73.
- Teti, O.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infants' and toddl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Two hundred and thirty-two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regarding children's temperament,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correlations and pathway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fants' and toddlers' temperament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affected affectionate and permissive-uninvolved parenting behavior. Second,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directly affected affectionat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uninvolved parenting behavior and mediated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Additionally the most important variable predicting mothers' affectionate and permissive-uninvolved parenting behavior was infants' and toddlers' temperament, and the most important variable for authoritarian parenting behavior was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Key words : parenting behavior, temperament, parenting self-efficacy, infant and toddler